국제.지역연구 16권 4호 2007 겨울 pp. 77-112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러시아 여성인권 연구:

여성폭력과 여성인신매매 문제를 중심으로*

강 윤 희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본 연구는 여성폭력과 여성인신매매 문제를 중심으로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러시아 여성인권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체제전환과의 연관선상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체제전환기에 사회적 약자로 등장한 러시아 여성들이 가정폭력, 성폭력, 전시폭력 등 다양한 폭력 행사에 노출되어 있으며, 성 관련 산업 종사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각 사례별 분석은 체제전환과 여성인권 문제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체제전환이 러시아 여성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러시아 사회 내의 편견과 젠더 고정관념이 여성인권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으며, 국가기관의 부적절한 대응이나 무관심이 여성인권 상황을 개선시키기 보다는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러시아 여성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같은 객관적 조건이 마련되어야 함과 동시에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여성들이 겪는 각종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인권에 반하는 범죄로 간주하는 국제적 인권표준의 수용이 러시아에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 수준, 사적 수준에서 행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나 지역적, 지구적으로 행해지는 여성인신매매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인권의 문제로 간주할 때만이 진정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여성인권, 여성폭력, 여성인신매매, 체제전환, 러시아 젠더 관념, 조직범죄집단

* 본 논문은 2006년 국민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

I. 서 론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정치적 성격의 인권탄압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던 구소련이 붕괴하고 공산주의 지배가 종식되자 러시아에도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고 인권의 가치가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지난 15년간의 역사는 러시아의 인권문제가 기대에 부응하는 정도로 개선되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국제적 기준에 못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에서는 과거 소련 시절의 인권문제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권문제들이 대두되었다. 구소련 시절에는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정치적 성격의 인권탄압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1] 현대 러시아에서는 정치적 인권탄압 외에 민족과 인종에 기반 한 폭력 행사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등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체첸전쟁에서의 불법적 체포, 고문, 즉결처형과 같은 명백한 인권침해뿐 아니라 음으로 양으로 자행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현재 러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인권문제들이다.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현상은 체제전환과 인권 문제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 체제전환은 국가의 붕괴, 경제의 붕괴, 사회 내 폭력 증대를 야기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다양한 형태의 인권유린 상황에 노출시켰다. 웨일러(Weiler, 2004: 12-15)의 연구가 지적하였듯이, 1990년대의 충격요법(shock therapy)에 따른 경제개혁은 급속한 사유화, 사회적 혼란, 범죄의 증가,[2] 실업의 급증,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s)의 파괴를 가져왔다. 특

---

1. 소련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인 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억압적인 국가기구에 의한 권력 남용과 인권침해는 종종 감금, 고문, 강제노동수용소나 정신병원 수용, 처형의 형태를 띠었다. 따라서 당시 인권문제는 첨예한 정치적 문제였다.

2. 러시아 국가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는 184만 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1995년부터 2004년간에는 매년 250만 건에서 300만 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Росстат, 2005: 315).

히 사유화 추구, 사회적 보호의 포기, 소수에게만 유리한 재산관계의 옹호, 불평등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취약한(socially vulnerable) 개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경제자유화와 동시에 실시된 정치적 탈집중화는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동하면서 다수의 러시아 시민의 인권을 잠식하였다. 러시아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규범을 지키지 못하였고 시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개인의 불가침권(inviolability)을 보호하지 못하였다. 특히 법 집행에 있어서 러시아 국가의 실패는 인권침해 당사자가 공권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였다.[3]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의 인권문제이다.[4] 여성이 다양한 형태의 인권유린 상황에 노출된 것은 1992년 이후 추진된 정치. 경제개혁의 여파로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 등장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소련국가의 붕괴는 소련시절 마련되었던 여성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의 붕괴를 의미하였다. 사회복지제도의 전반적인 후퇴와 더불어 여성은 과거 국가가 보장하였던 고용의 안정성과 자녀양육 지원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시장화, 자본주의화를 지향하는 경제개혁은 여성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쳤다(Silverman and Yanowitch, 2000; 강윤희, 2005). 경제개혁 추진 초기의 예상과는 달리 실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비슷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지만, 여성은 연금생활자, 실업자, 임금 체불이 가장 심각했던 공적 부문 임금노동자의 다수를 이루면서 경제개혁의 패자(loser)로 등장하였다(강윤희, 2005). 실업과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일군의 여성들이 존재함은 이들이 여러 형태의 인권 유린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체제전환이라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러시아 여성인권 문제가 두드러진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는 현상과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의 여성

---

3. 소련 붕괴 이후 국가 기능의 마비와 범죄화로 인하여 공권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4. 소수민족, 고아, 군대신병, 죄수들과 더불어 여성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군을 이룬다(Weiler, 2004).

인권 문제는, 타 지역의 여성인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문화와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여성 차별적 요소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문화적, 역사적 요인 자체를 규명하고 분석하기 보다는 이러한 요소들이 체제전환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운, 혹은 심화된 형태의 여성인권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한정한다. 러시아의 문화나 역사 속에 여성 차별적이며 여성 억압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Ashwin, 2000; 강윤희 2006). 따라서 체제전환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여성인권 문제들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만 이들 역사적, 문화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다룰 것이다.

논문에서는 체제전환기에 가장 심각한 여성인권 문제로 떠오른 여성폭력(violence against women)과 여성인신매매(trafficking in women)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논문 2장에서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문제를 크게 가정폭력, 성폭력, 전시폭력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며, 3장에서는 러시아 여성들이 러시아 국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되는 현상과 관련된 인권문제를 다룰 것이다. 각 장에서는 현황 분석과 더불어 여성인권 문제를 야기하거나 촉진시키는 요인들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 안팎의 문헌자료 수집뿐 아니라 여성인권 문제를 다루는 러시아 여성 NGO 단체의 탐방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음을 밝힌다.[5] 또한 러시아 여성단체들이 제공하는 관련 인터넷 자료, 그리고 국제적으로 여성인권 증진 캠페인을 벌리는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나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와 같은 국제인권 NGO들의 연간보고서, 특별 보고서, 정기간행물 등을 활용하였다. 이들 국제인권 NGO의 보고서들은 정기적으로 러시아 내부의 인권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피해자 여성들을 직접 인터뷰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상당한 분량의 1차 자료를 제공한다.

---

5. NGO 단체 탐방 및 인터뷰는 2003년 5월, 2003년 7월, 2006년 8월에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실시되었다. '위기센터연합 폭력중지,' '여성을 위한 심리위기센터,' '여성의 집 스뱌토이 예피미이'를 방문하였고, 이들 단체에서 발행하는 소책자, 정기간행물 등을 수집하였다.

II. 여성폭력

러시아에서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주어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1990년대부터이다. 소련 시절에도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 문제가 존재하였으나, 사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삶에 대한 관심 외면으로 인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감추어져 있었다(Zabelina, 1996: 169-170).[6] 그러나 체제전환기에 들어와서 여성에 대한 각종 형태의 폭력(가정폭력, 배우자에 의한 살해, 강간을 포함한 각종 성폭력, 성희롱) 행사가 점증하자 러시아 국내외에서 이에 대해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 행사는 현대 러시아 사회에서 만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1.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은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폭력(아동, 노인에 대한 폭력 포함)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므로 가정폭력은 젠더-특정적(gender-specific) 성격을 띤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은 파트너에 의한 구타, 성적 학대, 부부간 강간(marital rape), 그리고 여성할례와 같이 여성의 몸에 해로운 전통적 관습 강요 등의 형태를 띤다. 가정폭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범죄이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도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미 소련시절에도 가정폭력은 존재하였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그 규모나 심각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

6. 소련 시절에는 계급간의 폭력, 혹은 국제관계에서의 폭력만 인정되었고 개인 수준의 폭력은 문제시 되지 않았다. 따라서 폭력이 개인 권리에 반하는 것으로 파악되지 않았고, 가정폭력이나 강간과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가 거의 없다.[7] 반면에 최근의 연구들은 가정폭력이 현대 러시아 여성의 안전(security)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내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다음의 몇 가지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체제전환기 동안 사회전반에 걸쳐 범죄와 폭력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에 발생한 모든 폭력범죄의 80%는 가정 내에서 일어났다(Human Rights Watch, 1997). 여성은 전체 가정폭력 피해자의 93%에 달하였다(Roshchin, 2003). 1993년 14,500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것은 당해연도 러시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절반을 넘어서며 마피아에 의한 살인사건의 수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다(Attwood, 1997: 99). 1999년 러시아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공식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14,000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가족의 일원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다고 한다(Amnesty International, 2005(b): 17). 매년 살해된 러시아 여성의 60%는 남편에 의해 살해되었고(Hughes, 2005: 220), 2003년에도 9천 명의 여성이 배우자에 의해 살해되었다(Amnesty International, 2005(b): 17). 이 수치는 러시아 여성이 미국 여성보다 2.5배, 서유럽 여성보다 5배 많이 남편이나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Vital Voices Global Partnership, 2003). 또한 아내구타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매일 36,000명의 러시아 여성이 남편이나 파트너에게 구타당하고 있다고 한다(Vital Voices Global Partnership, 2003).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은 심리적, 경제적, 성적 그리고 신체적 폭력의 형태를 띤다(Горшкова и Шурыгина, 2003). 심리적 폭력은 여성의 자존심을 손상하기 위해 행해지는 모욕, 멸시, 비난, 욕설, 위협적 말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경제적 폭력은 여성의 취업을 금지하거나 지출 내역을 감시·통제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신의 수입을 감추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또한 이혼 시의 불공정한 재산 분배를 통해 여성에게 경제적 의미에서의 고통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적 폭력은 물

7. 소련 시절 개인에 대한 폭력-성폭력 포함-에 대한 논의는 일종의 타부였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디어에서도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Zabelina, 1996: 169-170).

리적 힘이나 위협을 통해 여성의 동의 없이 섹스나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구타나 부부싸움 이후 모욕을 주기 위해 강제적으로 강행하는 성교가 포함된다. 신체적 폭력은 구타, 고문, 구타 위협, 각종 도구를 사용한 폭력 행사 등이 포함된다.

러시아에서 현재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이 광범위하게 행해진다는 것은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여성위원회(Council for Women)가 수행한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 2,200명 중 70%가 남편에 의한 심리적, 성적, 신체적, 혹은 경제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Amnesty International, 2005(b): 18). 한편 2002년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87%의 러시아 남성과 93%의 여성 응답자들이 러시아에 가정폭력이 존재한다고 시인하였고, 이들 중 15~20%는 자신의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한다고 답하였다(Roshchin, 2003). 아내구타는 특별히 심각한 문제였다. 1996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혼 여성 중 25%가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혼한 여성의 30%가 이전 결혼생활 중 폭행을 당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2000~2002년 동안 7개의 러시아지역에서 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여성)의 41%가 최소 한 번 이상 남편에게 구타당하였고, 3%는 한달에 한 번 이상 구타당하였다고 답하였다(Roshchin, 2003).

이처럼 러시아에서 가정폭력이 눈에 띠게 증가한 것은 무엇보다도 체제전환이 가져다준 가정 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0년대의 경제개혁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의 붕괴를 가져왔고, 개개인들은 실업이나 임금체불과 같은 열악한 경제적 환경 속에서 가계를 꾸려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특히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국가를 대신하여 가족부양의 의무를 다시금 맡게 된 러시아 남성들은 '경제적 능력과 가족부양 능력'을 자신의 남성성 표출의 핵심으로 간주하였고(강윤희, 2006: 218),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경우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

남성들의 좌절감은 많은 경우 알코올 소비로 표출되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알코올 중독은 노동생산성 저하, 안전사고 빈발, 국민건강 훼손과 같은 국가적 손실을 야기할 뿐 아니라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

어 왔는데, 경제개혁에 동반된 실업, 인플레이션, 빈곤 등으로 만연된 좌절감은 소련 시절부터 고질적인 문제였던 알코올 중독을 더욱 부채질하였다.[8] 급진적 경제개혁으로 많은 러시아인들이 경제적 불안정과 빈곤 상태로 내몰리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주에 의존하였기 때문이었다. 체제전환기에 급증한 알코올 소비는 가정불화 및 가정폭력을 야기하는 직접적 원인 중 하나였다. 실제 남편에 의한 배우자 살해의 60~75%는 남성의 음주와 관련 있었다(Weiler, 2004: 81).

한편 러시아 사회에 팽배한 젠더 고정관념은 여성이 가정 내, 사회 내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비난받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다. 여성들은 체제전환기에 등장한 제반 문제들에 대해, 특히 사회. 인구학적 문제들의 발생과 심화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간주되었다. 예컨대 이혼율의 증가, 핵가족화, 출생률 저하, 청소년 범죄의 증가, 매매춘, 에이즈 확산, HIV 및 성적으로 전염되는 병의 확산, 심지어는 실업률의 증가, 국민건강의 악화에 대한 책임이 여성들에게 있다고 비난받았다(Zabelina, 1996: 171). 이러한 태도는 여성에 대한 폭력 행사를 용이하게 만들었고, 피해자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을 했으며 폭력 행사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다.

여성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가정폭력이 특히 문제시 되는 것은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사회 내 편견과 국가의 무관심 때문이다. 가정폭력 문제를 여성의 인권에 반하는 범죄로 간주하는 관점이 아직 러시아 사회에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폭력 문제는 개인의 문제, 사적인 문제로 환원되었다. 이에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당사자, 그 주변인들, 그리고 경찰 및 검찰과 같은

---

8. 1988년부터 증가하던 알코올 소비는 특히 1992년과 1995년 사이에 급증하였는데, 7억 2,300만 리터에 해당하던 소비량이 13억 9,900만 리터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후 1996년에는 10억 7,600만 리터로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이후 2002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전홍찬, 2006: 102). 마찬가지로 알코올 중독자 수는 1992년 인구 10만 명 당 103명이었던 것이 1994년에는 162명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다소 감소세를 보이는 기간이 있기는 했으나 1999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02년에는 155명에 달하였다(전홍찬, 2006: 103). 알코올 소비량과 알코올 중독자의 연도별 변동 추세는 러시아의 경제 상황과 알코올 소비 및 중독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 공권력은 이 문제를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Human Rights Watch, 1997). 피해자 여성들은 대부분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고, 고발한 경우에도 경찰의 미진한 반응과 늦장 대응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개인적, 사적 문제로 간주되는 가정 내 폭력 문제의 해결은 거의 전적으로 개인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현재 가정폭력 희생자 여성들에게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9] 여성위기센터(кризисный центр)라고 불리는 민간조직에서 피해자 여성들에게 폭력적인 남편(과 파트너)을 피해 피신할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이러한 편의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10]

2. 성폭력(sexual violence)과 성희롱(sexual harassment)

체제전환기에 러시아 사회 전반의 폭력화 현상과 범죄 증가와 맞물리면서 성폭력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성폭력 현황에 대한 신뢰할만한 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그 규모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국가가 제시하는 공식적 수치는 정부에 신고 된 사건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성폭력 현황을 축소해서 보여주고 있다. <표 1>에 제시된 공식적 수치에 따르면, 1990년대에 해마다 팔천 건 이상의 강간 및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정부에 신고 되었다. 소련 붕괴 직전인 1990년에서 1996년에 이르기까지는 매년 1만 건이 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1996년 이후에는 감소 추세를 보여 2000년에 7,900건이 신고 되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여성 중 극히 일부만이 경찰에 신고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11] 실제로 발생한 사건 수는 <표 1>에 제시된 수치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1993년 한 해 동안

9. 체제전환의 혼란기에 국가가 처리해야 할 다른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도 했거니와, 인적,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것도 한 요인이 되었다.

10. '여성을 위한 심리위기센터' 소장 호듸레바(Н. Ходырева)와의 인터뷰(상트 페테르부르크: 2006. 8. 24).

11. 자벨리나(1996: 27)는 강간 피해자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3%에도 못 미친다고 추정하였다.

<표 1> 신고 된 강간 및 강간미수 사건 (천 건)

연도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건수*	15.0	12.5	10.9	9.3	9.0	8.3	7.9	8.2	8.1	8.1	8.8
10만 명당 희생자 수**			7.4	6.3	6.1	5.7	5.4	5.7			

출처: * Росстат (2005: 315).
** Roshchin (2003).

14,400건의 강간 사건이 신고되었으나 이 수치는 실제 강간 사건의 10%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되었다(Attwood, 1997: 99).

한편 직장 내 성희롱도 러시아 사회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은 소련시절에도 만연하였으나(Bridger et al., 1996: 178),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이르러 여성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으로 인해 성희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실제 1996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70명 중 36.9%는 직장에서 성추행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답하였다(Клецин, 1998: 21). 성추행의 형태는 성적 의도를 담은 무례한 농담, 가벼운 신체 접촉과 포옹, 성적 뉘앙스의 시선 및 제스처, 섹스 요구, 성적 뉘앙스를 담은 편지 및 전화, 에로틱물 제시 등으로 나타났다(Клецин, 1998: 38). 연령대별로 볼 때, 보다 젊은 여성일수록 직장 내 성추행이 자주 일어난다고 답하였고,[12] 직장 내 성추행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 중 57.7%는 남성-직장상사를 가해자라고 답하였다.[13] 이것은 직장 내 권력관계가 성추행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성폭력·성희롱의 증가는 무엇보다도 체제전환기에 여성을 성적 대상물로 간주하는 견해가 사회 전반에 팽배하게 된 사실과 관련이 있다. 서구 글래머 문화의 수용과 섹스 산업의 유입은 여성과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여성의 성성(sexuality)이 상품화, 상업화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었다.[14]

---

12. 18~25세 여성 응답자 중 47.3%가 성추행이 자주 일어난다고 답한 반면, 26~34세 그룹은 39%가, 35~39세 그룹은 37.7%가 자주 일어난다고 답하였다. 대조적으로 45~50세의 중년 여성응답자 중에서는 27%만이 자주 일어난다고 답하였다(Клецин, 1998: 22).

13. 반면에 남성-동료를 가해자라고 답한 이는 43.2%, 남성-부하는 8.6%에 달하였다(Клецин, 1998: 23).

이러한 변화는 여성을 가정과 직장에서 남성을 즐겁게 해주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을 낳았고 남성들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였다.

이에 더하여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은 여성들이 직장 내 성희롱을 감수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었다. 이 시기에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보다 회사 측에 의한 해고, 인원감소, 회사정리 등에 의해 직장을 잃는 경향이 더 높았고, 일단 실업이 되면 남성 노동자보다 더 힘들게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었다(강윤희, 2005: 315-316). 따라서 여성들은 해고되지 않고 직장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은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간주하는 분위기와 맞물려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조건을 마련하였다(Attwood, 1997: 103; Bridger et al., 1996: 178-182).

이처럼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성희롱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심각한 노력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러시아의 현실이다. 여기에는 성폭력과 성희롱 문제를 바라보는 러시아인들의 전형적인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즉 피해 여성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남성 가해자가 도발되었다고 믿는 것이다. 이처럼 피해 여성이 '도발적 행동(provocative behavior)'을 했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태도는 남성에 의한 가해행위를 정당화하고 책임을 여성 피해자에게 돌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시각은 러시아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을 뿐 아니라 경찰과 같은 법집행기관, 법정, 심지어 학계에서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5]

특히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공권력의 태도는 피해여성들이 성폭행 사건을 신고하지 않도록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현행 러시아 법에 따르면 피해자 여성이 신고를 할 때만 사건이 성립된다. 그러나 러시아 경찰들은 종종

---

14. 이 시기에 여성의 성적(sexualized) 이미지들을 소재로 한 소비재 상품들이 시장에 범람하였다. 예컨대, 누드가 포함된 연극, 여성의 가슴이 노출된 락 음악 비디오, 포르노그래피 등이 난무하였다(이문영, 2006).

15. 한 러시아 학자는 "강간의 70%는 피해자의 경솔하고 경박한, 도발적인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도발적 행동'에는 "저녁에 길거리를 조심성 없이 걷는 것, 한적한 곳에서 낯선 이를 만나기로 한 것, 술을 마시거나 음악을 같이 듣는 것"을 포함하였다(Zabelina, 1996: 173).

가정폭력이나 성폭행에 대한 신고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뇌물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Attwood, 1997: 103). 또한 경찰의 심문 과정이나 법정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폭력 희생자들은 동일 사건에 대해 5~6번 진술해야만 했고(Zabelina, 1996: 173), 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법 집행관이 보여주는 냉정, 무시, 경멸적 태도를 감내해야 했다. 이에 여성피해자들은 '단순한 공포,' '강간범의 친척들이나 친구들로부터의 복수의 가능성,' '자신의 자식들에 대한 고려,' '수치심,' '그들 자신의 명성에 대한 고려(특히 농촌지역에 사는 희생자에게 더욱 해당)'과 같은 이유에서뿐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진술할 의사가 없음,' '가해자가 벌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의 결여' 등의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린다(Zabelina, 1996: 175). 따라서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공권력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여성인권 보호는 요원한 실정이다.

3. 전시폭력(wartime violence)

러시아의 체제전환이 소수민족 분쟁을 동반하였다는 점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분쟁지역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폭력 행사는 종종 전투원 간의 전투 행위로 국한되지 않고 민간인의 피해를 불러왔다. 또한 민족분쟁 시 발생하는 민족과 인종에 기반 한 차별과 폭력 행사는 소수민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그들이 소수민족 여성임으로 인하여 특별히 전시 강간(wartime rape) 및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기 쉬웠다.

가장 대표적인 분쟁사례인 체첸 전쟁의 경우, 러시아 군인과 체첸무장 세력 양쪽에 의해 민간인 학살, 고문, 불법적 감금, 납치 등과 같은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러시아 국내외 인권옹호단체들이 보고한 바 있다.[16] 1차 체첸전쟁(1994~96년)과 2차 체첸전쟁(1999~) 시 발생한 군인 및 일반 시민

16. 국제인권 NGO인 국제사면위원회나 휴먼라이츠워치, 그리고 러시아인권 NGO인 메모리얼인권센터(Memorial Human Rights Center), 러시아-체첸친선사회(Society for the Russian-Chechen Friendship) 등이 지속적으로 체첸전과 관련된 인권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의 행방불명, 고문, 즉결 처형과 같은 명백한 인권침해 사례는 국제적 비난을 불러왔으나 상황은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

1차 체첸전쟁에서의 민간인의 인권유린은 임의적 억류, 고문, 구타의 형태로 나타났다. 체첸 반군과 그 지원세력을 구별해 내기 위해 러시아연방군이 설립한 여과캠프(filtration camp)에 억류되었던 사람들은 총 1만 명에서 2만 명에 다다를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들 중 다수는 무고한 일반 시민이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과캠프에 억류된 이들은 심문 과정에서 전기고문을 포함한 고문과 구타를 당하였고, 러시아군 포로와의 맞교환 대상으로 이용되거나 전투 행위 시 인간방패(human shields)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억류자들 중에는 여성과 아이들이 포함되었다(Amnesty International, 1997).

2차 체첸전쟁에서의 인권유린 상황은 더욱 심각하였다. 수천 명의 민간인이 무차별 공격에서 사망하였을 뿐 아니라 "실종"되었다. 실종자는 러시아연방군에 의해 납치, 불법 억류된 후 거취를 알 수 없게 된 자를 의미하였다. 2004년 당시 공식 확인된 실종자 수는 3천 명에서 3천 5백 명에 달하였으나, 실제 실종된 자의 총수는 이 수치의 2배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Society for the Russian-Chechen Friendship, 2004). 이들 중 일부는 고문을 당하고 즉결처형된 후 집단무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기도 하였다. 실종자의 대부분은 남성들이었지만, 여성들도 종종 실종되었다(Human Rights Watch, 2001: 14-15; Amnesty International, 2002: 69). 특히 체첸여성들이 2002년 10월 모스크바 극장 인질극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지고 이후 자살폭탄테러도 감행하자, 체첸여성들은 점점 더 러시아연방군의 표적이 되었다(Amnesty International, 2004(c); 2004(d)).

러시아연방군에 의해 억류된 기간동안 심한 구타와 고문을 받았다는 보고는 끊이지 않았다.[17] 여성도 예외가 아니었다(Amnesty International, 2004(c); 2004(d)). 체첸 자살테러범으로 의심받은 한 체첸여성은 러시아연방군에 의해 2주 동안 반복적으로 전기고문을 받았다(Amnesty International, 2005(a): 30). 한편 적군 남성을 모욕하기 위해 여성에게 특별히 가해지는 폭력행위라

17. 전기고문, 담뱃불로 지지기, 귀 짜르기, 성 고문 등이 자행되었다고 한다.

할 수 있는 전시 강간(wartime rape)도 자행되었다. 이미 1차 체첸전부터 러시아연방군이 체첸군 지원 마을의 주민을 벌주기 위해 강간을 자행했다는 보고가 있었다(Amnesty International, 1997). 2차 체첸전에서도 러시아연방군에 의해 감금되어 있는 동안 반복적으로 강간당한 여성들, 소녀들, 그리고 소년들의 사례들이 보고되었다(Amnesty International, 2000: 62; 2002: 73;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01; 2003; 2005).

한편 분쟁을 피해 인근 지역으로 피신한 난민들은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는데, 난민들의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였다. 2000년에만도 3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고, 2001년에는 16만 명의 난민들이 체첸, 그리고 이웃 지역인 인구세티아(Ingushetia)의 난민수용소에 수용되었다. 난민수용소의 생활환경은 매우 열악했고 위생상태가 나빴다. 뿐 아니라 2002년 체첸으로 돌아가지 않고 인구세티아에 남아있던 약 7만 명의 난민들은 계속되는 습격과 자의적인 체포, 구금의 대상자가 되었다.

이처럼 분쟁 지역에서의 인권유린 사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태도는 매우 미온적이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 정부는 실종, 고문, 강간 등의 가해자를 밝히거나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실제 1차 체첸전쟁 시에 민간인을 고문하거나 학살한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Amnesty International, 1997). 2차 체첸전쟁 시 18세 소녀를 납치, 강간, 살해한 것으로 기소된 러시아의 한 대령은 1심에서 일시적 정신착란(temporary insanity) 상태였음을 인정받아 무죄로 방면되기도 했다(Amnesty International, 2004(b)).[18] 러시아 정부나 체첸 지방정부가 민간인에 대한 인권유린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독립적이며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계속적으로 문제시되었으나 상황은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

러시아 정부가 분쟁 지역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보다는 은폐하려 한다는 점은 체첸전 관련 언론 보도 및 인권단체 활동을 억압하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체첸 전쟁에 관련된 민감한 사항들, 특히 분쟁 지역에서

18. 이 사건은 국제적 비난을 불러왔다. 이후 그는 2심에서 납치 및 살해 혐의로 10년형을 받았다.

의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한 보도는 러시아 미디어의 금기사항이었다(Zabelina, 1996: 181). 일부 소수의 인권운동가들과 용기 있는 기자들만이 관련 보도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 1996년 체첸공화국 경제부흥 기금 횡령문제를 조사하던 여기자 차이코바(N. Chaykova)의 사망 사건(Amnestry International, 1997), 2001년 여과캠프에서의 억류자들의 강간 및 고문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던 여기자 폴리트코프스카야(A. Politkovskaya)의 구금 사건(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02),[19] 그리고 2003년 러시아연방군의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유럽인권법정(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 소송을 제기한 비티에바(Z. Bitieva)의 살해 사건(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04)[20]은 이러한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체첸전과 관련된 부정부패 및 인권유린 사태를 폭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제재를 받거나 암암리에 살해되는 등 강도 높은 억압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분쟁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기울여지지 못하고 있다.

III. 여성인신매매

소련시절에는 감추어져 있던 여성폭력 문제가 현대 러시아에서 드러난 것과는 달리, 매춘을 목적으로 한 여성인신매매는 소련 시절에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인권유린 문제이다. 체제전환과 더불어 러시아 내 매춘 시장(sex market)이 급속히 확대되고 다양한 성 관련 산업(sex industry)이 발전하자 성 산업에 종사할 여성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이 불법적으로 여성들을 모집, 관리하면서 여성인신매매

---

19. 그녀는 체첸전에서의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조사를 한 공로로 2001년 인권저널리즘 상을 수여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2006년 모스크바에서 피살당하였다.

20. 비티에바는 15명의 복면을 쓴 무장군인에 의해 살해되었고, 이 사건에서 그녀의 남편, 아들, 남동생 등 총 6명이 사망하였다.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여성인신매매 현황, 여성인신매매 발생 요인, 그리고 여성인신매매에 대한 러시아 정부 입장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1. 여성인신매매 현황 분석

(1) 러시아 내 여성인신매매

체제전환기에 여성 및 소녀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급증한 것은 러시아내 매춘 산업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 소련 시절에도 음성적으로 매춘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이나, 매춘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이다.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매춘 여성의 수는 러시아 전 지역에서 급증하였다. 모스크바나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페트로자보드스크, 븨보르그, 무르만스크와 같은 러시아 서북부 국경지대의 도시들, 사라토프, 소치와 같은 러시아 중부의 중소도시들, 블라디보스톡과 같은 러시아 극동지역 연안도시들에서 매춘은 급증하였다. 모스크바의 경우 경찰은 1999년 당시 약 8만 명의 여성이 매춘에 종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고(Hughes, 2002: 21), 한 매춘여성 연구자는 모스크바에만 약 2만 명에서 13만 명의 매춘여성이 존재한다고 추정하였다(Khodyreva, 2005: 243).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는 4천 명에서 6천 명의 매춘부가 존재한다고 지역경찰 당국이 발표하였으나, NGO 활동가들은 실제 수가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Hughes, 2002: 20).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매춘여성들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직업적 매춘여성들은 매춘중개인에 의해 관리된다. 모스크바의 경우 한 명의 매춘중개인이 10~25명의 매춘여성을 관리하고 있고,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경우는 15명 정도의 여성을 관리한다고 한다(Hughes, 2002: 20, 21). 매춘중개인은 매춘을 알선하면서 매춘여성으로부터 상납을 받고 상납금의 일부를 지역경찰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매춘중개인들은 다시 보다 큰 조직범죄집단에 연결되어 이들에게 상납하고 대신 '보호'를 받는다. 이처럼 매춘사업은 매춘에 종사하는 일개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착취하는 거대한 조직망과 연결되어 있는

심각한 범죄사업이다.

성 산업의 발전은 이 분야에 종사할 여성들에 대한 수요를 급증시켰다. 이에 매춘산업에 관여하는 조직범죄집단은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에서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하여 인신매매하였다. 모집 지역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러시아 내에서도 빈곤한 지역으로 간주되는 곳이었다. 농촌 지역의 여성뿐 아니라 체제전환기 경제적 타격을 많이 받은 중소도시의 소녀와 여성들이 대상이 되었다. 예컨대 우랄 지역의 예카테린부르크와 첼랴빈스크, 중남부 러시아의 보로네즈와 니즈니 노브고로드,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와 하바로프스크 등에서 모집이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구소련 지역 여성들, 예컨대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러시아로 인신매매되었다(Hughes, 2002: 26-31).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신매매된 여성들은 대부분 성 관련 향락유흥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이동되었다.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사라토프 등이 그 대표적인 도시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매춘여성들은 동일지역 출신 여성, 주변 지역에서 인신매매된 여성, 그리고 다른 구소련지역에서 인신매매된 여성들로 이루어졌다. 예컨대 사라토프의 경우 매춘여성 중 30%만이 그 지역 출신이며 나머지 70%는 주변 농촌지역 출신이었다. 인종적으로는 절반은 러시아인, 나머지 절반은 카자흐 여성이었다(Hughes, 2002: 26). 모스크바의 경우 모스크바 주변 지역의 여성과 구소련지역 여성들이 매춘여성의 다수를 이루었다. 1999년 경찰에 붙잡힌 매춘여성 중 44%가 구소련지역 출신이었고, 이중 상당수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출신이었다(Hughes, 2002: 21). 이처럼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은 러시아 국내에서도 보다 빈곤한 지역에서 보다 부유한, 향락 산업이 발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뿐 아니라, 다음 절에서 설명되듯이 지구적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로 보내지기 위해서도 대도시나 국경 지역으로 이동되었다.

(2) 지구적 여성인신매매와 러시아

러시아여성의 인신매매는 러시아 지역 간에도 이루어지지만, 러시아를 넘어서서 국제적으로도 행해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밀수출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여성들로서 강요된 매춘, 성적 노예, 구타와 같은 착취 및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러시아 여성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1990년대 이후 러시아가 지구적 여성인신매매 산업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성 산업을 위해 여성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낙후한 국가들이었다. 초기에는 타이,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여성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이후 도미니크 공화국이나 콜럼비아 등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그리고 가나나 니제르공화국과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빈곤한 여성들을 수출하는 국가로 등장하였다(Репецкая, 2004). 그런데 1989년 동유럽의 붕괴와 1991년 말 소련의 해체는 지구적 여성무역의 패턴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들 국가들이 체제전환을 거치면서 극심한 경제, 사회적 혼란을 맞게 되자 동유럽과 구소련 지역의 수백만 명의 여성들은 성 산업을 위해 매매될 수 있는 일군의 집단을 이루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라트비아와 같은 CIS 국가들은 전 세계에 걸쳐 성 산업에 매매되는 여성들을 공급하는 주요 국가들이다(Hughes, 2000). 이에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은 여성매매에서의 슬라브 여성의 증가를 '제4의 물결'이라고 명명하였다.

현재 러시아 여성은 전 세계 40~50여 개국에서 섹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Hughes, 2002: 38). 이것은 거의 모든 서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미국,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뉴질랜드, 타이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처럼 러시아 여성들이 전 세계에 걸쳐 인신매매되고 있으나, 그 정확한 수자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1997년 한 해 동안 동유럽 및 구소련 지역에서부터 인신매매된 여성의 숫자는 17만 5천 명에 달하였고,[21] 이 숫자는 2004년에 5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Репецкая, 2004). 러시아 여성만 고려했을 때, 2003년에 약 15만 명이 해외로 매매되었고 이중 절반 정도가 섹스 산업에 종사하도록 강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Weiler, 2004: 75).

유럽에서는 러시아 여성들이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유고슬라비아연방 수도

21. 미국 국무성에 따르면, 이들 중 십만 명은 구소련 지역에서부터 인신매매된 것으로 추정된다(Hughes, 2002: 32).

벨그라드, 핀란드의 헬싱키 등을 거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는데, 최종 종착지는 독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델란드와 같은 선진국뿐 아니라 세르비아, 헝가리, 그리스, 사이프러스와 같은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나라들까지 포함하였다(Hughes, 2002: 39-45).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핀란드나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선진 국가로의 장기, 단기 진출이 두드러졌고, 초기에는 네덜란드와 같이 향락산업이 발전한 서유럽 국가로의 진출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사증 규정이 엄격한 서부 유럽지역보다는 사증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와 같은 남부 유럽 관광국으로 진출하는 경향을 보인다(설동훈 외, 2003: 38).

근동아시아에서는 러시아 여성들이 그루지아를 거쳐 터키나 이스라엘, 이집트와 같은 지중해연안 국가로 팔려나갔다. 터키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증의 취득이 손쉽고 관광, 유흥산업이 발달해 있어 인신매매 여성들의 이주 목적지가 되고 있다. 터키에서는 러시아 및 구소련 국가들에서 온 여성들이 많아서 '나타샤(Natasha)'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매춘부를 의미하기도 한다(Hughes, 2000). 이스라엘에도 3만 명 정도의 러시아 이주 여성이 성매매 영역에서 불법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집트에서도 러시아 여성들이 나이트클럽 등에서 댄서로 고용되고 있다(설동훈 외, 2003: 38). 이 외에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두바이,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나 파키스탄으로 인신매매되기도 한다.

아시아의 경우, 성 산업이 발달한 타이가 이들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의 최종 종착지가 되거나, 호주와 같은 인접국가로 다시 수송하는 중간 경유지가 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사증 요구가 까다롭고 국경 통제가 심하여 쉽게 러시아 여성을 수출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만, 한국, 중국으로도 러시아 여성들, 특히 극동 및 시베리아 출신 여성들이 수출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주로 흥행사증을 받은 러시아 여성들이 바, 나이트클럽 등에서 호스티스, 연예인, 가수, 댄서, 스트리퍼로 고용되었다. 일본 유흥산업에 종사하는 러시아 여성의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5년 한 해 동안 흥행비자로 일본에 입국한 러시아 여성의 수

는 4,763명에 달하였다(Hughes, 2002: 47). 급속한 경제 성장을 보이는 중국으로도 러시아 여성들이 팔려갔는데, 2003년에만도 약 1만 5천 명의 여성들이 중국으로 팔려갈 것으로 추정되었다(Amensty International, 2003(a)). 한국의 경우, 1996년부터 러시아 및 구 소련지역 여성들이 예술흥행비자(E-6)를 받아 연예인의 자격으로 유흥업소에 취업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수는 1999년 이후 급증하게 된다(설동훈 외, 2003: 45). 2002년도에 예술흥행비자를 받아 입국한 러시아 여성은 3,039명, 우즈베키스탄 414명, 키르기지스탄 150명, 우크라이나 139명으로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 전체의 74%에 달하였다(김환철, 2004: 34). 2002년 12월 31일 당시 장 . 단기 예술흥행 사증 소지 러시아 여성은 2,596명으로 추정되었다(설동훈 외, 2003: 46). 국내에 유입된 러시아 및 구소련 여성들은 한국인을 주 고객으로 하는 나이트클럽, 가라오케, 단란주점과 같은 전국의 유흥업소와 기지촌 미국인 전용 클럽, 그리고 이태원이나 부산의 텍사스촌 클럽 등에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동훈 외, 2003: 80).[22]

2. 여성인신매매 발생 요인 분석

소련 붕괴 이후 여성인신매매가 급증한 것은 체제전환기의 다양한 사회적 조건과 관련 있다는 점이 이미 여러 보고서나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Hughes(2005)는 여성인신매매를 용이하게 하는 러시아 내적 조건들로 (1) 국가의 붕괴와 범죄화(Criminalization of the State), (2) 경제 붕괴와 실업, (3) 조직범죄의 증대, (4) 여성에 대한 폭력 증대, (5) 미디어에서의 서구식 매력의 조장 등의 요소를 지적하였다. Weiler(2004)도 경제개혁과 약한 국가(weak state)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보고, 여성의 경제적 지위 약화와 국가의 무관심이 여성인신매매 문제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절에서는 인신매매 발생 요인을 수요와

22. 대조적으로, 한국으로 유입된 필리핀 여성들은 주로 기지촌 클럽에서 미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동훈 외, 2003: 79).

공급의 측면, 그리고 중개변수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요의 측면: 성관련 산업의 발달

여성의 인신매매는 주로 매춘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체제전환기에 러시아 여성 및 소녀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급증한 것은 러시아 국내 및 국제적 성 산업에 종사할 여성에 대한 수요 급증과 관련이 있다. 러시아에서는 체제전환과 더불어 도입된 자본주의적 요소로 인해 성이 상품화되면서 다양한 성관련 산업이 음으로, 양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초기에는 국경의 개방과 더불어 구매력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매춘산업이 발전하였는데, 모스크바나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핀란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뵈보르그 지역 등 국경 연안 지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매춘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이들 러시아로 관광 온 외국인들은 러시아 여성과의 '로맨스'를 원했고 이것은 러시아 여성의 에스코트 서비스로 충족되었다. 혹은 '신부 구하기'를 목적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실제 섹스관광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Hughes, 2002: 25-26). 초기에는 주로 외국인을 고객으로 하던 매춘 산업이 곧 이어 뉴 러시안(новый русский)이라고 불리는 신흥 러시아 부자들을 상대로 하는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콜걸 에이전시가 급증하였고 신문지상에 관련 광고가 넘쳐났다(Bridger et al., 1996: 165).

한편 매춘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포르노그래피의 불법 제작이 급증하면서 제작에 동원할 여성(과 남자 어린이)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였다. 체제전환기의 포르노그래피 붐은 『플레이보이』(*Playboy*)나 『펜트하우스(*Penthouse*)』의 러시아판 출간뿐 아니라,[23] 『스피드-인포』(*СПИД-info*), 『안드레이』(*Андрей*), 『마하온』(*Махаон*), 『테마』(*Тема*)와 같이 러시아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포르노그래피 잡지의 출판으로 이어졌다(이문영, 2006: 218-219). 또한 비디오로 제작되는 포르노그래피는 러시아 국내 수요뿐 아니라 국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불법적 유통망을 통해 유럽 등지

23 1996년 당시 『플레이보이』 러시아판은 10만 부의 판매부수를 자랑하였으며, 『펜트하우스』의 판매 부수는 이보다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Goldschmidt, 1999: 324).

로 수출되었다. 현재 러시아 포르노그래피 제작 및 유통 산업은 규모가 거대해졌을 뿐 아니라 국제화되어서 그리스나 터키와 같은 해외지역에서 촬영한 불법 비디오를 덴마크나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의 도시로 수출하고 있다.

국제적 우편주문신부(mail-order bride) 산업의 발전도 판매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켰다.[24] 수년 전부터 잠재적 미국인 남편들에게 제3세계 여성들 – 초기에는 주로 아시아계 여성들 – 을 소개해주는 중매업이 인터넷을 통해 발전하였는데,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 이후 러시아 및 동유럽 여성들은 새로운 상품으로 등장하였다. "여성스럽고, 성숙하며, 충성스럽고, 가족에 헌신적"이라고 묘사되는 러시아 여성들은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적이며 페미니즘에 의해 타락한" 미국 여성들에 질려버린 미국 남성들에게 완벽한 신부의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 대체상품이었다(Osipovich, 2005: 232). 그녀들은 요리와 바느질, (남편을 포함한) 가족 돌보기에 능하고 남편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통제 가능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현재 미국의 우편주문신부 산업은 연간 2백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매우 수익성이 높은 산업인데(Osipovich, 2005: 233), 미국 에이전시들은 여성들을 충원, 보급하는 러시아 국내 에이전시와 연결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보다 직접적으로 성 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성을 해외로 송출하는 산업도 발전하게 된다. 1990년대 이후 이주노동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nt labour)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25] 러시아도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러시아 여성들이 주로 서비스업에 집중적으로 고용된다는 사실이다. 현재 지구적 이주의

---

24. 우편주문신부 산업은 여성의 몸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한다. 남성 고객이 인터넷 상품 목록에서 기호에 맞는 여성을 택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이 여성은 국경을 넘어 빠른 시간 내에 남성 고객에게 '배달'된다. 신부 카탈로그에 등장하는 여성은 남성 구매자를 위해 이국적인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섹스 전문가'로 재현되고 남성에게 하녀로서 충성을 다짐하는 것으로 선전된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이를 초국가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여성인신매매의 한 형태로 간주하기도 한다(문경희, 2006: 50).

25. 이주노동의 여성화는 빈곤국 여성들이 선진국으로 이주하여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유모 및 가사노동자 취업, 성 매매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업종 취업, 그리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요하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는 현상으로 말미암는다(김영란, 2006: 148-149).

흐름에서 저개발국 여성들은 선진국의 서비스 산업으로 유입되어 선진국 남성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외국인 여성들은 새로울 뿐 아니라 값싸고 통제하기 쉽기 때문에 선호된다.[26] 러시아 여성들은 통제 가능한 외국인일 뿐 아니라 '백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구매자들이 선호하는 인기 상품이었다.[27] 특히 근동아시아, 아프리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러시아 여성들이 '백인'이라는 소위 '우등한' 인종이면서도 경제적으로 빈곤한 '열등'한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에서 유색 인종 남성들의 열등감과 성취 욕구를 자극하면서 특별히 선호되고 있다(설동훈 외, 2003: 38).

여성 송출산업은 여성 모집, 여권 및 비자 서비스, 운송 및 국경 넘기, 목적지 국가에서의 불법 취업 등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인력충원업자들은 러시아 빈곤 지역에서 해외 취업을 빌미로 여성들을 모집한다. 모집된 여성들은 대부분 무용수, 종업원,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취업 비자를 받아 목적지 국가로 보내진다. 목적지 국가로의 합법적 진입이 어려울 경우 제3국을 경유하거나 불법적 루트를 통해서 입국한다. 합법적인 여권이나 비자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위조여권이나 비자가 이용되기도 한다. 국경을 넘어서면 이들 여성들은 목적지 국가의 에이전시에게 넘겨지게 되는데, 이들 에이전시들은 여권을 압수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들 여성들을 성 산업에 종사하도록 만든다. 여성 인신매매는 매우 수익성이 높은 범죄 산업으로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여성매매의 지구적 무역 규모는 매년 70억에서 12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Hughes, 200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제전환기의 국경의 개방과 더불어 여성을 상품화하는 각종 성 관련 산업이 발전하자 이들 산업에 종사할 여성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자발적 지원만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

26.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저개발국에서 유입된 외국여성에게 저임금을 지불해도 되고, 또한 여권통제를 통해 이들 외국여성들을 쉽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국여성보다 이들을 선호하게 된다.

27. 전 지구적 이주와 인신매매의 시스템 속에서 매춘시장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 치러지는 것은 백인 여성이다. 예전에는 나이지리아 여성이나 아시아 여성들이 차지했던 자리를 이제 러시아 여성들이 차지하게 되었다(설동훈 외, 2003: 36).

없자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이 기만적 방식으로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충원하고 있는 것이다.

(2) 공급의 측면: 절대적, 상대적 빈곤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이 인신매매할 여성들을 모집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무엇보다도 빈곤층 여성의 존재였다.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의 경제개혁은 실업과 임금체불과 같은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였고, 사회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의 하락을 가져왔다.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의 러시아 극빈자는 1992년 전체 인구의 33.5%에 달하였고, 최저치를 기록한 1997년에도 21%에 달하였다. 문제는 여성이 빈곤층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다(강윤희, 2005: 322-323). 빈곤을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실업이었다. 1992년 이후 국가경제 규모가 급속히 축소되자 고용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실업률이 상승하였다. 여성은 남성보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 측에 의해 정리 해고될 가능성이 더 높았고, 일단 해고될 경우 남성들보다 구직 기간이 더 오래 걸렸다. 특히 40세 이상의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보다 더 큰 구직의 어려움을 겪었다. 실업은 특히 자식을 홀로 키우는 편부모 여성 가장들에게는 치명적 타격이었다.[28] 한편 체제전환기에 임금체불은 개인들에게 심각한 경제 위기를 가져다주었다.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제때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급여 일부만을 받았다. 여성들은 소련 시절부터 같은 직종 남성 노동자보다 평균 30% 정도 적은 임금을 받았을 뿐 아니라 대체적으로 저임금 직종에 편중되어 있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더 큰 피해를 보았다. 즉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공적 부문에 집중되어 있던 여성의 고용 패턴으로 인하여 임금체불의 피해를 더 심각하게 받았다.

실업과 임금체불로부터 인하여 다수의 빈곤층 여성이 생겨나자 빚어지는 경제적 문제는 여성들을 매춘으로 내모는 결정적 요소였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1990년대 경제개혁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러시아 내 매춘이 증대하는 주 원인이 되었다. 실업으로 인하

28. 1990년대 후반 편부모 가정 중 80%가 여성의 수입에만 의존하였다. 이들 중 80% 이상은 실업상태였다(Hughes, 2005: 215).

여 매춘 이외에 가족을 부양할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여성들은 직업적 매춘부가 되었다.[29] 또한 매춘은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예컨대 간호사, 교사, 점원, 사서-에게 대안적 직업으로 대두하였고, 심지어 여학생들이 학비를 조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Khodyreva, 2005: 243-4).[30] 이들 매춘에 관여하게 된 여성들은 대부분 조직범죄집단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고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기 쉬었다.

한편 절대적 빈곤뿐 아니라 러시아 지역간 경제격차로 인한 상대적 빈곤도 여성을 인신매매의 위협에 노출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지역별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경제개혁의 충격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중소도시 중에서도 소비에트형 거대굴뚝산업에 의존하던 지역이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이 외에 단일 종류의 산업에만 의존하는 도시, 군사방위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에서 실업 문제가 특히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지역의 여성들은 농촌지역의 여성들과 더불어 가장 최하위 빈곤층을 이루었고, 생존을 위해 매춘으로 몰리거나 러시아내 타 지역이나 해외에서의 취업 가능성에 속아 인신매매단에 쉽게 포섭되었다.

실제 Hughes(2002)가 국제이주기구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적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었던 러시아 여성들은 크게 2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보다 나은 고용 가능성이나 미래의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해외로 진출하려던 "순진한(innocent)" 희생자들이 첫 번째 부류를 이룬다. 주로 빈곤한 지역 출신인 이들은 해외에서의 취업과 높은 수입에 대한 약속에 쉽게 속았는데,[31] 이들은 자신들이 웨이트리스나 바텐더, 모델, 유모, 요리사, 무용수

---

29. 관련 자료들은 실업과 매춘 사이에 강한 연계가 있다고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98년 외환 위기 시, 볼가 지역의 많은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매춘으로 내몰렸다. 이 지역에서는 수백 명의 여성 교사, 간호사, 미혼모, 심지어 여학생까지 생존을 위해 매춘에 내몰렸다고 한다(Hughes, 2005: 217).

30. 호두레바(2005: 243-244)는 매춘에 종사하는 다수의 러시아 여성들은 직업적인 매춘부가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때때로 매춘하는 보통 여성이었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존경할만한(respectable)' 여성과 매춘부 사이의 간격은 매우 좁다는 것을 의미한다.

31. 지역적으로 볼 때, 산업구조상 자신의 고향에서 다른 직업을 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들이 해외취업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로 취업할 줄로 알았을 뿐 해외 섹스산업에 팔려진다는 것을 몰랐다. 이와 같이 순진한 희생자가 있는 반면, 자신이 어떤 종류의 일을 하게 되는지 미리 알고 있거나, 강제적으로 성 산업에 종사하게 된 것이 아닌 경우도 물론 있다. 이들은 '자발적(willing)' 희생자로 간주되는데, 전체 희생자에 대략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Hughes, 2002, 33-35). 이들 중에는 이미 러시아에서 성 산업에 종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해외 성 산업에 종사하다가 러시아로 추방당한 여성들이 포함된다.[32]

이 외에 부모를 잃거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고아원 출신 아이들이나 가정이 없는 '거리의 아이들'은 쉽게 매춘에 빠져들거나 인신매매단의 표적이 된다.[33] 이들은 친척이 없거나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단에 의해 실종되어도 주목받지 못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인신매매단은 특별히 이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고, 이들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invisible)' 희생자군을 이룬다.[34] 이들은 매춘이나 포르노그래피 제작에 동원되며, 해외로 매매되기도 한다.

(3) 중개변수: 러시아 조직범죄집단

'마피아'라고 불리는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은 러시아 국내에서 자행되는, 또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인신매매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러시아 국내 여성인신매매는 지역에 기반을 둔 소규모 조직범죄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지구적 여성인신매매는 해외 조직범죄집단과 연결된 대규모 조직범죄집단에 의해 조직적으로 관리. 운영된다.[35] 여성을 상품화하는 인신

---

32. 이 부류의 여성들은 "순진한" 희생자들과는 매우 다른 심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다시 해외로 나가려는 강한 성향을 가진다고 한 여성운동가는 언급하였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근교 소도시에서 가출소녀, 여성매매 희생자들을 돕는 '여성의 집 스뱌토이 예피미이' 소장 예피모브스카야(З. Ефимовская)와의 인터뷰(브세볼로쥐스크: 2003. 7. 11).

33. 러시아에는 약 65만 명의 어린이들이 고아원에 수용되어 있고, 약 100만에서 250만 명의 어린이들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Hughes 2002: 35).

34. 어린이와 미성년자들이 매춘, 강제노동에 착취되는 현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Клей менов(2004) 참조.

35. 조직범죄집단의 3분의 1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였고, 3분의 1은 러시아 국가 수준에서, 나머지는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Shelley, 2006: 98).

매매 및 매춘 산업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산업으로서 러시아조직범죄집단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다. 특히 국제적 조직범죄집단들은 마약, 불법무기 뿐 아니라 여성을 매매함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다. 2003년 한 러시아 두마의원에 따르면, 여성인신매매의 이윤이 매우 커서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마약매매(drug trafficking) 시 발생하는 수입을 능가하고 있다"고 한다(Weiler, 2004: 75).

여성인신매매, 특히 국제적 인신매매는 체제전환기에 일어난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수적 증가 및 국제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러시아 정부 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 785개였던 조직범죄집단은 1996년 중반에 이르러 그 수가 8천 개로 늘어났다. 조직범죄집단에 관련된 사람들의 숫자는 12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나, 혹자는 수백만 명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Shelley, 2006: 98). 또한 러시아 내무성 자료에 따르면 1996년 당시 약 110개의 러시아 조직범죄 집단들이 44개국에서, 독립적으로 혹은 해외 파트너들과 더불어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중 약 30여 개가 여성인신매매 및 매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한다. 2000년에 이르러 이들 범죄 집단의 수는 200여 개로 증가하였고 활동 국가도 58개국으로 늘어났다. 최근에 이들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활동은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브라질, 콜롬비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스리랑카 등에서 증대되고 있다.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은 미국범죄신디케이트(US crime sysdicates), 칼리마약카르텔(Cali drug cartels), 콜럼비아혁명군(FARC: Columbian Revolutionary Armed Forces), 시칠리마피아(Sicilian Mafia)를 위시한 4대 이탈리아범죄조직 뿐 아니라 헝가리, 체코, 폴란드 범죄집단과 협조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 외에도 세르비아, 알바니아, 이스라엘, 터키의 범죄집단과 연결되어 있고 일본 야쿠자와도 연계를 가지고 있다(Hughes, 2002: 38-39).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국제적 연계는 러시아 여성들을 전 세계로 송출하는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제공하였다. 실제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은 러시아 여성의 송출을 위해 유럽, 아시아, 중동, 북아메리카에서 여성인신매매 및 매춘산업을 운영하는 해외 범죄집단과 공조하고 있다.[36]

---

36. 유럽의 경우,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유고슬라비아인, 터키, 알바니아인들이 유럽 매춘 네트워크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다(Hughes, 2002: 39).

3.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의 인권문제

러시아 국내 및 해외 인신매매 피해여성들은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 놓여 있다. 인간을 상품화하는 인신매매 자체가 인권 유린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인신매매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만성, 강제성, 폭력성, 착취는 희생자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요소들이다. 먼저 인신매매되는 여성들은 자신들이 하게 될 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만적으로 모집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절반가량의 희생자 여성들은 해외에서의 취업 기회를 빌미로 모집되었다. 그러나 목적지 국가에 입국한 이후 이들은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성 산업에 종사하도록 만들어진다. 목적지 국가로 이송되는 과정이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여권과 비자를 대행사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다. 또한 인신매매조직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고액의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해 여성들은 빚을 갚기 위해 노예와 같은 노동을 해야만 한다(Weiler, 2004: 75).

이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도망치려할 때 종종 폭력이 동원된다. 또한 현지의 조직범죄집단은 러시아 조직범죄집단과 연결되어 있어서 희생자 여성들은 러시아에 남겨두고 온 자신의 가족들이 보복 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매춘에 종사하게 된다. 인신매매된 여성들이 고국에 돌아오더라도 보복이 두려워서 대부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직범죄집단의 폭력성은 이들 여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저임금과 각종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매춘사업을 관리하는 조직범죄집단, 혹은 이들에게 연결된 부패한 경찰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하기도 한다. 한편 피해여성들은 HIV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의 성매매 및 유흥산업에 유입된 러시아 및 구소련 여성들에 대한 실태조사(설동훈 외, 2003)는 이들 여성들의 삶의 질과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었다. 고국에 있는 가족 부양, 혹은 학비 마련 등의 동기로 한국

에 오게 된 이들 여성들은 대부분 댄서나 가수와 같은 공연예술인으로 활동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한국 유흥업소에서 이들이 실제로 해야 하는 노동에는 공연 뿐 아니라 접대(테이블서비스), 성적 서비스가 포함되었다. 피해여성들은 자신들의 송출 비용을 제공한 한국의 연예기획사들에 대해 빚 상환 의무가 있었고, 계약을 파기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만 했다. 또한 직장에서 사소한 실수에도 부과되는 벌금 제도를 감내해야 했고,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처럼 러시아 여성들이 해외로 인신매매되어 인권 유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이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러시아 정부는 분명 일부 아시아국가 정부들이 하듯이 여성인력의 해외송출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취하지는 않았다.[37] 그러나 인신매매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거나 방치하였다. 2001년 조직범죄통제국(the Department of Organized Crime Control)의 한 담당자가 여성을 해외로 수출하는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Hughes, 2005: 211), 여성인신매매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해외로 인신매매되었던 여성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이들을 희생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범죄자로 취급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여성인신매매를 예방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더하여 러시아 국가의 부패는 범법자를 처벌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부패한 경찰, 공무원, 외무부 관료 등이 매춘, 인신매매집단과 연결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38] 또한 러시아 여성단체들과 국제기구의 압력으로 2003년 초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가두마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

37. 예컨대 필리핀 정부는 자국의 경제개발 전략으로서 해외인력송출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취한다(설동훈 외, 2003: 40).

38. 부패한 러시아 경찰들이 조직범죄집단과 결탁하여 인신매매나 매춘 행위를 눈 감아주고 대신 성 상납이나 뇌물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다(Hughes, 2002: 22).

(Weiler, 2004: 75; Hughes, 2005: 211). 조직범죄집단들이 정치권과의 결탁을 통해 인신매매 방지법이 국가두마를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에 여성을 해외로 수출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범죄집단들은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다. 러시아 정부는 이후 2004년에 팔레르모 의정서(Palermo Protocol)로 알려진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비준하였으나, 의정서에 규정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러시아 여성의 인권 문제를 여성폭력과 여성인신매매라는 두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소련 시기에는 감추어져 있던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체제전환기에 전면에 부상하였을 뿐 아니라 가정폭력, 성폭력, 전시폭력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 행사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둘째, 소련 시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인신매매 현상이 나타났으며 러시아 빈곤층 여성들 가운데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 국내 지역간에 발생하는, 또한 지구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신매매는 각종 성 산업과 관련이 있으며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여성매매 네트워크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은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

이처럼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러시아 여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는 것은 체제전환기의 사회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의 도입과 맞물려 일어난 성의 상품화 경향, 빈곤과 실업으로 인하여 더욱 취약해진 여성의 지위, 가정과 사회 내 스트레스의 증가와 폭력의 증가, 범죄의 증가와 조직범죄집단의 성장, 인종 및 민족 분규의 발생, 매춘 및 유흥산업의 발달, 국경의 개방 등은 여성폭력이나 여성인신매

매를 용이하게 만드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급속한 정치 . 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취약해진 사회 환경으로 인해 러시아 여성들은 개인 수준, 국가 수준,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자행되는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된 것이다. 이것은 체제전환이 러시아 여성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체제전환기의 사회적 혼란 요소로 인해 발생한 러시아 여성인권 문제는 러시아 사회의 고유한 젠더 관념과 국가의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몰이해, 무대책과 맞물리면서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러시아 사회 내의 편견과 젠더 고정관념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인신매매 희생자를 피해자로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오히려 피해여성들을 비난하는 사회 풍조를 낳았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 행사나 인신매매 행위가 여성의 인권에 반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국가기관의 부적절한 대응이나 무관심을 초래하였다. 가정폭력의 경우 국가는 사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고, 성폭력의 경우 피해 여성이 가해자를 도발하였다는 남성 중심적 관점에 입각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시폭력의 사례에서는 러시아 국가가 여성에 대한 폭력 행사 뿐 아니라 특정 인종과 민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문제를 은폐하려는데 급급하였다. 인신매매의 경우에도 국가가 인신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아 여성인신매매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신매매범들을 처벌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제전환기의 혼란이라는 객관적 상황은 러시아 사회의 고유한 젠더 관념과 같은 주관적 요소와 맞물려 여성인권 문제를 특정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여성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의 취약한 사회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같은 객관적 조건이 마련되어야 함과 동시에 여성인권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여성들이 겪는 각종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인권에 반하는 범죄로 간주하는 국제적 인권표준의 수용이 러시아에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적 수준, 사적 수준에서 행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나 지역적, 지구적으로 행해지는 여성인신매매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인권의 문제

로 간주할 때만이 그 진정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윤희. 2005. 「체제전환기 러시아 경제개혁의 성별 영향에 관한 연구: 여성의 경제적 지위 변화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20권 1호. 한국슬라브학회. pp. 305-332.

강윤희. 2006. 「소비에트와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의 젠더 재구성: 여성성과 남성성의 변모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21권 4호. 한국슬라브학회. pp. 195-227.

김영란. 2006.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아시아여성연구』. 45집 1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pp. 143-189.

김환철. 2004.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 북부의 필리핀, 러시아여성을 중심으로」. 『사회정책논총』. 16집 1권. 한국사회정책연구원. pp. 31-56.

문경희. 2006. 「한국에서 다문화주의 모색: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인문담론모임발표문. http://home.pusan.ac.kr/~discuss/management/data/092.htm. pp. 43-73.

설동훈 외. 2003.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서울: 여성부.

이문영. 2006.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포르노그래피 연구」. 『슬라브학보』. 21권 2호. 한국슬라브학회. pp. 199-233.

전홍찬. 2006. 『통계로 이해하는 러시아』. 서울: 집문당.

Amnesty International. 1997. "Torture in Russia "This Man-Made Hell"." http://web.amnesty.org/library/print/EUGEUR460041997 (검색일: 2007. 4. 14).

Amnesty International. 2000. "Russian Federation: Continuing Torture and Rape in Chechnya." http://web.amnestry.org/library/print/EUGUER460362000 (검색일: 2007. 7. 3).

Amnesty International. 2001-2006.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2002. *The Russian Federation: Denial of Justice*. Oxford: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2003(a). "Russian Federation: Violence against Women - Time to Act!." http://web.amnestry.org/library/print/ENGEUR460192003 (검색일: 2007. 5. 22).

Amnesty International. 2003(b). "Russia's Hidden Shame." http://web.amnesty.org/library/print/EUGEUR460292003 (검색일: 2007. 4. 14).

Amnesty International. 2004(a). *It's in Our Hands: Stop Violence against Women*. Oxford: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2004(b). "Russian Federation: The Case of Kheda Kungaeva." http://news.anmesty.org/index/EUGEUR460292004 (검색일: 2007. 4. 14).

Amnesty International. 2004(c). "Russian Federation/Chechen Republic: The "Normalization" of a Human Rights Crisis." http://news.amnesty.org/index/ENGUER46032004 (검색일: 2007. 4. 14).

Amnesty International. 2004(d). "Russian Federation/Chechen Republic: "Normalization" in Whose Eyes? Summary." http://news.amnesty.org/index/ENGUER460322004 (검색일: 2007. 4. 14).

Amnesty International. 2005(a). *Lives Blown Apart: Crimes against Women in Times of Conflict, Stop Violence against Women.* Oxford: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2005(b). "Russian Federation: Nowhere to Turn to.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Family." http://web.amnesty.org/library/pdf/EUR460562005ENGLISH/$File/EUR4605605.pdf (검색일: 2007. 5. 15).

Amnesty International. 2005(c). "Russian Federation: Violence against Women Must Not Be Ignored." http://news.amnesty.org/index/EUGEUR460592005 (검색일: 2007. 4. 14).

Ashwin, Sarah. 2000. *Gender, State and Society in Soviet and Post-Soviet Russia.* London: Routledge.

Attwood, Lynne. 1997. "'She Was Asking for It': Rape and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in Mary Buckley. (ed.). *Post-Soviet Women: From the Baltic to Central A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99-118.

Bridger, Sue, Rebecca Kay and Kathryn Pinnick. 1996. *No More Heroines?: Russia, Women and the Market.* London: Routledge.

Goldschmidt, Paul W. 1999. "Pornography in Russia." in Adele Mari Barker. (ed.). *Consuming Russia: Popular Culture, Sex, and Society since Gorbachev.*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 318-336.

Hughes, Donna M. 2000. "The "Natasha" Trade - The Transnational Shadow Market of Trafficking in Women." http://www.owl.ru/eng/research/thenatasha.htm (검색일: 2006. 6. 21).

Hughes, Donna M. 2002. *Trafficking for Sexual Exploitation: The Case of the Russian Federation.*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Hughes, Donna M. 2005. "Supplying Women for the Sex Industry: Trafficking from the Russian Federation." in Aleksandar Stulhofer and Theo Sandfort. (eds.). *Sexuality and Gender in Postcommunist Eastern Europe and Russia.* New York: Haworth. pp. 209-230.

Human Rights Watch. 1995(a). "Neither Jobs nor Justice: Sta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Russia." http://www.hrw.org/reports/1995/Russia2a.htm (검색일: 2006. 9. 11).

Human Rights Watch. 1995(b). *The Human Rights Watch Global Report on Women Human Rights.* New York: Human Rights Watch.

Human Rights Watch. 1997. "Russia/Too Little, Too Late: State Response to Violence Against Women." http://www.hrw.org/reports97/russwmn/; http://www.hrw.org/reports97/russwmn/Russwmn2.htm; http://www.hrw.org/reports97/russwmn/Russwmn3.htm; http://www.hrw.org/reports97/russwmn/Russwmn4.htm (**검색일**: 2006. 9. 1).

Human Rights Watch. 1999-2006.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New York: Human Rights Watch.

Human Rights Watch. 2001. "Russia/Chechnya: The "Dirty War" in Chechnya: Forced Disappearances, Torture, and Summary Execution." http://www.hrw.org/reports/2001/chechnya/RSCH0301.PDF#search=%22russia%2Fchechnya%3A%20the%20Dirty%20War%20in%20chechnya%22 (**검색일**: 2006. 9. 11).

International League for Human Rights. 1997. "League Reports: The Trafficking of NIS Women Abroad." http://www.ilhr.org/ilhr/reports/traffic/report.html (**검색일**: 2007. 5. 11).

Khodyreva, Natalia. 2005. "Sexuality for Whom?: Paid Sex and Patriarchy in Russia." in Aleksandar Stulhofer and Theo Sandfort. (eds.). *Sexuality and Gender in Postcommunist Eastern Europe and Russia*. New York: Haworth. pp. 243-259.

Moscow Helsinki Group. 2006. "Domestic Violence." http://www.mhg.ru/english/1ED0294 (**검색일**: 2006. 9. 22).

Osipovich, Tatiana. 2005. "Russian Mail-Order Brides in U.S. Public Discourse: Sex, Crime, and Cultural stereotypes." in Aleksandar Stulhofer and Theo Sandfort. (eds.). *Sexuality and Gender in Postcommunist Eastern Europe and Russia*. New York: Haworth. pp. 231-242.

Roshchin, S. Y. 2003. "Gender Aspects of Violation in Russia." http://www.owl.ru/rights/undp2003/eng/8.htm (**검색일**: 2006. 12. 14).

Shelley, Louise. 2006. "Organized Crime Groups: "Uncivil Society"." in Alfred B. Evans Jr., Laura A. Henry, and Lisa Mcintosh Sundstrom. *Russian Civil Society: A Critical Assessment*. New York: M.E. Sharpe. pp. 95-109.

Silverman, Bertram and Murray Yanowitch. 2000. *New Rich, New Poor, New Russia: Winners and Losers on the Russian Road to Capitalism*. 2nd ed. New York: M.E. Sharpe.

Society for the Russian-Chechen Friendship. 2004. "Human Rights Violations in Chechnya." http://www.hrvc.net/main.htm (**검색일**: 2007. 5. 21).

Vasilieva, Anna. 2000. "The Roots of Violence." http://www.owl.ru/eng/womplus/2000/korni.htm (**검색일**: 2006. 6. 21).

Vital Voices Global Partnership. 2003. "The Problem of Domestic Violence: Russia, United States and Across the Globe." http://www.vitalvoices.org (**검색일**: 2007. 5. 21).

Weiler, Jonathan. 2004. *Human Rights in Russia: A Darker Side of Reform*. Boulder: Lynne Rienner.

Zabelina, Tat'iana. 1996. "Sexual Violence Towards Women." in Hilary Pilkington (ed.). *Gender, Generation and Identity in Contemporary Russia.* London: Routledge. pp. 169-186.

Ванденберг, Мартина. 1999. "Продажа женщин в израиль и принуждение к проституции." http://www.womnet.ru/prava/1999/nomer_4_5/art15.htm (**검색일**: 2006. 6. 21).

Горшкова, Ирина и Ирина Шурыгина. 2003. "Насилие мужей против жен данные общероссий ского социологическ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http://www.owl.ru/win/womplus/2003/02_02.htm (**검색일**: 2006. 6. 21).

Градскова, Ю. В. 2005. "Женщина как объект домашнего насилия гендерные аспекты." http://www.owl.ru/win/research/zhobektviolence.htm (**검색일**: 2006. 6. 21).

Ерохина, Л. Д. 2001.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 аналис роста проституции и трэффика на россий 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http://www.womnet.ru/prava/2001/nomer_11/analiz.htm (**검색일**: 2006. 6. 21).

Клей менов, М. П. 2004. "Криминальная эксплуатация детей в РФ." http://irkcenter.isea.ru/rezult/nauch_isled/9.htm (**검색일**: 2006. 6. 21).

Клецин, А. А. 1998.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 анализ сексуальных домогательств на работе (на пример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Санкт Петербург.

Понарина, Лариса. 1998. "Рабство на рубеже третьего тысячелетия: инициативы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искоренение секс торговли." http://www.womnet.ru/prava/1998/nomer_2/art2.htm (**검색일**: 2006. 6. 21).

Репецкая, А. Л. 2004. "Торговая женщинами для секс индустрии как один из ведущих видов деятельности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еступных орнанизаций ." http://irkcenter.isea.ru/rezult/nauch_isled/7.htm (**검색일**: 2006. 9. 10).

Росстат. 2005. *Россий 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статистиче ский сброник 2005.* Москва: Новости.

Тюрюканова, Елена. 2004. "Секс-эксплуатация женщин-мигрантов: легитимизация насильственных практик." http://www.owl.ru/win/womplus/2004/01_07.htm (**검색일**: 2006. 6. 21).

인터뷰:

나탈리아 호드레바(Наталия Ходырева). '**여성을 위한 심리위기센터**' **소장**(**상트 페테르부르크**: 2006**년** 8**월** 24**일**).

지나이다 예피모브스카야(Зинаида Ефимовская). '**여성의 집 스뱌토이 예피미이**' **소장**(**브세볼로쥐스크**: 2003**년** 7**월** 11**일**).

엘레나 포타포바(Елена Потапова). '**위기센터연합 폭력중지**' **코디네이터**(**모스크바**: 2003**년** 5**월** 6**일**).

Russian Women's Human Rights in the Post-Soviet Era: Focusing on Violence against and Trafficking in Women

Yoon-Hee Kang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okmi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Russian transition on the human rights of women in the post-Soviet era. As this paper shows, the increased social vulnerability of women has exposed them to various forms of violence both at home and in the workplace. As a result,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have escalated in the society, including violent crimes such as battering and murder, sexual crimessuch as harassment and rape, and trafficking in women for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both inside and outside Russia. Analysis reveals that the transition has had a negative effect on women's social and economic status and created conditions that have exacerbated the problem of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women. In addition, gender stereotypes prevailing in the society discriminate against women victims, and the indifference of the Russian state aggravates rather than ameliorates the problem. Consequently, this paper argues that the Russian government should take more responsibility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of women by adopting a perspective that regards any violence against women as an act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Key Word: Russian Women, Human Rights of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Trafficking in Women, Transition, Gender Stereotypes, Organized Crime Groups

강윤희.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61-1번지 136-702
Tel_02 910 4368 E-mail_yhkang@kookmin.ac.kr